



미 증시, 연준 긴축 우려, 차익실현 매물 출회되며 혼조세

미국 증시 리뷰

7 일(수) 미국 증시는 중국 수출입 지표 부진으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 캐나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AI 관련주 차익실현 매물 출회 등이 하방압력으로 작용하며 혼조세 마감 (다우 +0.27%, S&P500 -0.38%, 나스닥 -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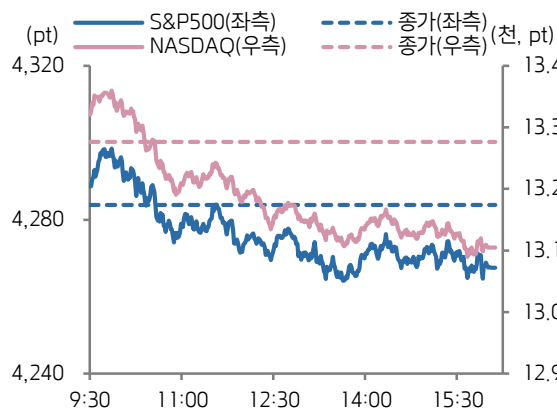
캐나다중앙은행은 지난 2 개월간 금리동결이후 25bp 인상을 단행하며 기준금리 4.75%에 도달. 근원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를 상당히 웃도는 수준에서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대된 것에 기인. CME Fed Watch 6월 25bp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은 31.0%로 상승.

중국의 5월 수출 전년 동기 대비 -7.5%(예상 -1.8%, 전월 8.5%), 수입은 -4.5%(예상 -8.0%, 전월 -7.9%) 기록하며 부진, 더딘 내수 회복 및 경기 둔화 우려 부각. 아세안향 수출은 YOY 9.9% 증가했으나, 미국향 수출은 -5.5%, 일본향 수출 역시 -3.5%로 축소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일부 은행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은행 시스템 전체적으로는 건전하다고 평가.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하여 원금 근무 확산으로 사무실 수요가 감소했고 은행들은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 "하지만 대형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는 대형 은행들이 문제에 대응하는 데 충분한 자본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줬고, 규제당국은 은행들이 충분히 대비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넓은 범위의 은행들을 긴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언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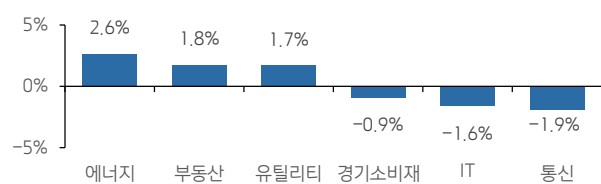
업종별로 에너지(+2.6%), 부동산(+1.8%), 유틸리티(+1.7%) 업종은 강세, 통신(-1.9%), IT(-1.6%), 경기소비재(-0.9%) 업종은 약세. 알파벳(-3.78%), MS(-3.09%), 아마존(-4.25%), 애플(-0.78%), 메타(-2.77%) 등 시총 상위 기술주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엔비디아(-3.02%), AMD(-5.15%) 등 반도체 및 AI 관련주 역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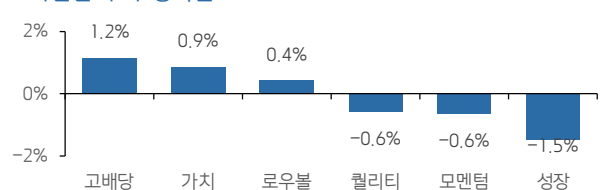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615.60	+0.01%	USD/KRW	1,303.86	+0.44%
코스피 200	343.22	-0.2%	달러 지수	104.10	-0.02%
코스닥	880.72	+1.2%	EUR/USD	1.07	+0.01%
코스닥 150	1,349.87	+2.12%	USD/CNH	7.15	-0.01%
S&P500	4,267.52	-0.38%	USD/JPY	140.09	-0.03%
NASDAQ	13,104.89	-1.29%	채권시장		
다우	33,665.02	+0.27%	국고채 3년	3.477	-2.3bp
VIX	13.94	-0.14%	국고채 10년	3.522	-2.8bp
러셀 2000	1,888.45	+1.78%	미국 국채 2년	4.556	+7.8bp
필라. 반도체	3,477.18	-0.32%	미국 국채 10년	3.795	+13.5bp
다우 운송	14,406.24	+2.45%	미국 국채 30년	3.945	+10.1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291.91	-0.08%	WTI	72.46	-0.1%
MSCI 전세계 지수	662.65	-0.28%	브렌트유	76.95	+0.87%
MSCI DM 지수	2,866.59	-0.4%	금	1955.4	-0.15%
MSCI EM 지수	995.41	+0.7%	은	23.53	-0.02%
MSCI 한국 ETF	64.76	-1.43%	구리	375.45	-0.04%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43%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43%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09%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306.84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원/달러 환율 상승 등 대외 부담 요인으로 인한 외국인 순매도 가능성 2. 미국 AI 주 동반 약세가 국내 관련 수혜주들의 투자심리를 악화시킬지 여부 3.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에 따른 현선물 수급 변동성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전일 엔비디아(-3.0%), 알파벳(-3.8%) 등 테크주들의 차익실현 명분을 제공했던 시장금리 급등 및 달러화 강세 배경에는 호주중앙은행(RBA)에 이어 캐나다중앙은행(BOC)의 추가 금리 인상 여파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 BOC 는 선진국 중앙은행에서 올해 3 월 처음으로 금리 동결 신호탄을 쏜 중앙은행인 만큼, 이들의 “동결 후 금리인상 재개”라는 행보는 주식시장과 여타 중앙은행들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제공한 것으로 보임.

이로 인해 6 월 FOMC 에서는 아직까지 금리동결(Fedwatch 66.2%)이 유력하긴 하지만, 7 월 FOMC 에서는 25bp 추가 인상(Fedwatch 50.7%) 가능성이 한층 더 점증하고 있는 모습. 만약 차주 예정된 6 월 FOMC 에서 연준이 1) 금리를 인상하거나, 2) 매파적 신호를 보내고 동결한 이후 7 월에 인상을 한다면, 주식시장은 추가적인 가격 조정 압력에 노출되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판단.

그러나 지난 6 일 RBA 의 인상 요인과 마찬가지로, BOC 가 추가 인상을 감행한 데에는 이들의 소비자물가가 예상을 깨고 재차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를 가중시켰기 때문(4 월 캐나다 헤드라인 CPI 4.4%YoY vs 3 월 4.3%, 컨센 4.1%). 반대로 미국의 헤드라인 CPI는 3 월 5.0% → 4 월 4.9% → 5 월 4.2%(컨센) → 6 월 3.2%(클리블랜드 연은 전망치) 등 순차적으로 내려가는 경로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

전일 발표된 5 월 맨하임 중고차 가격 지수의 급락 지속(-7.6%YoY), 5 월 미국 공급난 지수 추가 하락(-1.7pt로 2010 년 이후 최저치) 등 미국 내 인플레이션 둔화 신호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볼 필요. 차주 예정된 6 월 FOMC 혹은 7 월 FOMC 까지도 추가 금리인상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노이즈가 증시 변동성을 수시로 유발할 소지는 있겠으나, 연준과 마찬가지로 시장참여자들도 데이터 의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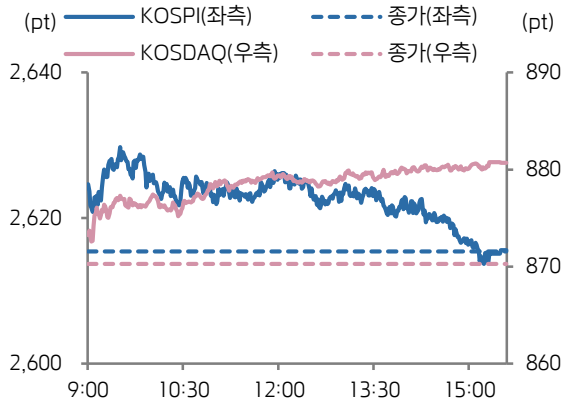
전일 국내 증시는 반도체주 차익실현 물량, 중국 경기 부진 우려 등 하방 요인이 상존했음에도, 낙폭과대 인식, 테슬라발 화재(세금공제 혜택 강화) 등에 따른 2 차전지주 강세로 상승 마감(코스피 +0.01%, 코스닥 +1.2%).

금일에는 BOC 의 금리인상 재개, 미국 AI 주 동반 약세, 원/달러 환율 상승 등 대외 부담 요인이 국내 IT, 성장주들을 중심으로 약세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 선물옵션 동시만기일도 예정되어 있는 만큼 장 후반 및 장 마감 전 동시호가 시간대에 외국인과 기관의 현선물 수급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

한편 중국의 5 월 수출(-7.5%YoY, 컨센 -1.8%), 수입(-4.5%, 컨센 -8.0%) 등이 혼재된 결과를 기록하면서 경기 모멘텀 회복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 실정. 이 같은 중국 경기 부진은 이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와 주식시장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 무역협회 데이터에 의하면, '22 년 4 분기 한국의 전체 수출 감소분에서 중국향 수출 감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58.5%, '23 년 1 분기에는 57.5%로 집계되는 등 중국향 수출 부진이 전체 수출 부진의 절반 이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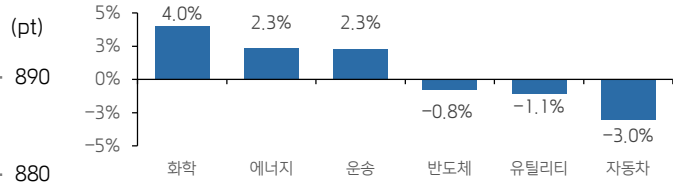
하지만 한국의 대중 수출 의존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지고 있는 만큼, 상황을 크게 비관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 일례로,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1 년 25.3% → 22 년 22.8% → 23 년(~1 분기) 19.5%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1 년 14.9% → 22 년 16.1% → 23 년(~1 분기) 17.8%로 증가하고 있음. 또 '23 년 1 분기 누적 중국향 수출 증가율은 -29.8%를 기록했으나, 중국 외 미국 등 여타 지역 합산 수출 증가율은 -6.8%를 기록하면서 상대적으로 중국외 수출이 덜 나빠다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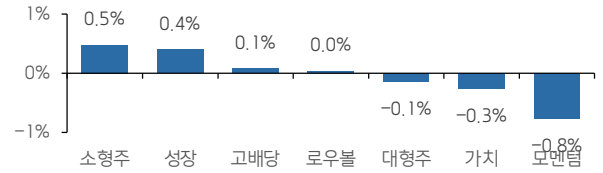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